

한국 기지촌 소설의 기법적 연구

金 亭 子*

차 례

I. 기지촌 소설과 매춘의 역사

I-1. 한국 매춘의 역사적 전개

II. 기지촌 소설의 기법적 특성

II-1. 기지촌 소설의 서사구조

III. 기지촌 소설의 문학사적 의의

참고문헌

I. 기지촌 소설과 매춘의 역사

기지촌이라고 함은 군부대 주변의 마을 혹은 도시를 일컫는 말이다. ‘기지’라고 하는 것은 군대의 보급, 수송, 통신, 항공 등의 기점이 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데, 한국군을 포함하여 어떠한 군대의 기지이건 간에 그러한 기지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마을들을 모두 기지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한국군 기지 주변의 마을들을 기지촌이라고 일컫지 않는다. 기지촌이라고 하면 흔히 미군 부대 주변을 생각한다. 한국전쟁에 무릇 16개국의 유엔군들이 참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기지촌이라고 하면 미군 부대를 떠올리는 연상작용에서 한국사의 심각한 통증을 지각하게 된다. 그것은 다른 나라보다도 미군 부대가 한국 역사나 사회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기

*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국문과 교수

때문이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돌아간 자리에 미군은 고스란히 일본군의 자리를 물려 받아 미군정이 시작되었다(1949. 9. 28). 1949년 미군이 군정을 끝내고 일시 철수하였으나(1949. 6. 29) 한국전쟁과 더불어 다시 상륙한 미군은 대규모의 군대를 다시 한국땅에 투입하였다. 1953년 휴전협정 체결 이후로 모든 외국 군대가 철수하였으나, 주한 미군의 철수는 느리게 진행되다가 지금까지 큰 변동 없이 4만 5천 내외를 유지해오고 있다. 미군은 일제에서 한국을 해방시켜준 해방군인 동시에 제 2의 점령군으로 이어져 나간 셈이다.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외국 군대, 특히 미국 군대의 주둔지 주변을 배경으로 형상화한 작품들을 '기지촌 문학'이라고 일컫게 되었다. 이제까지 기지촌 문학을 분단문학의 하위 장르로 인식하여 분단의 깊은 상처의 일면을 보여주는 문학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기지촌 문학이 조국 분단의 역사적인 상처 속에서 생성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기지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함의하고 있는 의미 속에는 '매춘'이라는 사회 문제가 끈끈하게 도사리고 있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다. 자본주의의 확산과 한국 농촌의 피폐, 해방과 전쟁과 빈곤, 그리고 매춘의 정치사회화라는 함수관계가 기지촌 문학이라고 일컫는 범주 속에 자리잡고 있는 것을 새삼스럽게 인식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기지촌 문학 가운데서 주로 기지촌 소설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한국 매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그것은 한국의 역사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가를 개괄하면서 그러한 배경을 가진 매춘의 문제가 기지촌 소설 속에서 어떻게 기법화되고 형상화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기지촌 주변의 매춘이 왕성하게 번져나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캐어 보고 한국 민족의 정신이 건강하고 정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아울러 모색하고자 한다.

I-1. 한국 매춘의 역사적 전개

한국의 매춘현상을 오늘날과 같이 복잡미묘하게 구조화시킨 결정적 단서는 바로 일본 제국주의의 침투와 해방 후 미군정의 영향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한

국의 매춘 현상을 역사적으로 생성·변화·유지시킬 수 있었던 직접적 요인은 전쟁과 외국 군대의 주둔이라는 변수들 속에 있었다¹⁾. 그러나 이는 자칫하면 '매춘 결정론'에 함몰되어 우리들의 내부에서 유인된 자생적 매춘현상의 가능성을 모두 배제해 버리려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 쉽다.

신라시대에도 이미 창녀(娼女)가 있었고, 이조의 양녕대군이 창가를 익애했고, 수양대군이 14세 때 창가(娼家)에서 잠을 잤다는 등 한국 매춘의 고전적 역사를 거론하는 경우도 있으나²⁾, 이를 정확한 학설로 받아들일 만한 자료는 없는 것 같다. 이능화의 견해로 본다면 매춘의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남녀가 동석만 하게 되면 모두 매춘의 잠재적 의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논리로 함몰될 우려가 있다³⁾.

조선조 이전에 밀매음의 양상을 띤 매춘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시적인 사회현상으로 나타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거점은 조선조 말기(19세기 말)라고 볼 수 있다. 이때에 이르러 기생(妓生)⁴⁾ 이외에도 이른바 갈보(蠅甫)라고 불려지던 유녀(遊女)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나, 이들은 관기(官妓)들의 밀매음 형태로 볼 수 있어, 매춘행위를 조정에서 공인한 바는 없었다⁵⁾.

이들 밀매음부들의 증가는 봉건사회 질서의 붕괴와 개항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일본인 거류지에 들어온 일본인 매음녀들의 영향이 더욱 컸으리라 본다⁶⁾. 조선의 개항 이후 일본의 공창 제도는 조선 내의 일본인 거류지에 도입되었고 청일전쟁 이후 거류지의 유곽은 더욱 성행하였다. 을사보호조약 이후 일본은 조선인 매음

1) 박종성, 『한국의 매춘』(인간사랑, 1994), p. 63

2) 이경복, <한국근대기녀사>(《전통문화 6》, 1985), pp. 52~60

3) 李能和, 『朝鮮解語花史』(동문선, 1927)

4) 妓生이란 명칭은 주석에 앉아 술을 따르고 기예를 업으로 하는 한국 여인을 가리키며, 이조시대의 '일품기생'에 해당된다. 娼妓란 불특정 다수에게 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여인을 지칭하며 이조시대의 2·3품 기생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蠅甫라고 하여 花娘遊女, 女祠堂牌, 色酒家 등을 통칭하는 명칭 등이 있었다.

5) 박종성, 같은 책, p. 65

6) 일본의 매매음은 매음 전문업소인 遊女들의 영업을 遊廓에 관해서 공인하는 公娼制度에서 이루어졌다. 山下英愛, <한국 근대 공창제도 실시에 관한 연구>(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1991) 참조

부에 대한 성병검사를 실시하여 기생, 창기 단속령을 내리고 조선에서의 공창 제도를 실시했다. 일본이 조선 공창제도⁷⁾를 실시한 것은 피지배 민족의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이었고, 성의 유린이었으며 한국 매춘의 대중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처럼 한일합방 직전 일본은 공창제도를 조선에다 이식한데 성공하였고, 조선에 주둔하게 된 일본 군대와 일본인들을 위한 자국의 공창들도 확보하였다.

1920년대 전반기를 거치면서 이 땅에도 매춘업이 일반적 현상으로 되어 갔다. 그것은 사창의 만연을 의미하는 것이며, 상대적으로 공창은 쇠퇴해 갔다. 사창이 만연하게 된 원인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과 토지점령정책, 제 1차 대전 후의 불경기 등 생활고의 극한 속에서 유랑·결식·아사보다는 매춘을 택하는 여성이 많아졌다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었다⁸⁾. 일제가 도입하여 전파시킨 매춘문화는 한국을 매춘사회로 변질시키는데 철저히 기여했다. 일본 공창의 이식문화가 이 땅에서 오랜 지구력을 발휘하게 된 원인은 그들의 매춘문화에로의 유인 충동을 우리 스스로가 통제하고 조절하지 못했던 데 있었다.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조선의 청년들을 징용·징병으로 이끌고 가면서 조선 처녀들을 일본군 위안부, 정신대로 강제로 끌고 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1945년 일제가 물러가고 뒤이어 남한에 들어온 미국 군대는 한국 땅 위에 일본이 남기고 간 매춘문화의 잔재를 ‘한국 매춘의 제 2기’로 만들어 준 촉매제로써 공헌한 존재들이다. 일본 총독부를 접수한 미군 정부는 일제가 설치한 공창 폐지령을 내렸으나, 해방 후 극한의 빈궁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들에게 그 법령 하나로 매매춘을 폐지시킬 수는 없었다.

전쟁 속에서 가족과 헤어지고 삶의 터전을 잃은 한국의 여성들은 미군 부대의 주변으로 몰려 들어 양공주 집단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전쟁 직후 부모형제

7) 조선의 공창제도가 사회적으로 공식화된 것은 1904년 10월 10일 일본 공사관 산하 경성 영사관령(京城領事館令) 제 3호에 의해서였다. 그 후 1908년 9월 한국 경서청도 기생과 창기를 구별, 기생·창기 단속령을 발표, 1910년 8월 13일 통감부 경무총감부령도 이 사항을 전국에 적용하는 조치를 취한다.

8) 손정목, <일제하의 매춘업-공창과 사창>(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연구실 편, 『도시행정연구』(3), 1988), pp. 305~310 참조

의 생사를 모르고 떠돌던 여자 아이들과 부모가 있어도 가난에 못 이겨 돈벌이에 나선 여자 아이들이었고, 미군들에게 강제로 몸을 뺏기고 매춘의 길로 들어선 여자나, 부대 안에 들어가 부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인연으로 양공주가 된 여자 아이들도 많았다. 또한 이들 여성들을 둘러싸고 삶의 뿌리를 내려보고자 하는 떠돌이 인생들과 가난한 원주민들이 모여 기지촌의 삶을 형성하였다. 형식적으로나마 폐지되었던 매춘은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급격히 확산되어, 미군 부대의 주변에 촌락의 형태를 이루며 자리를 굳혀 나갔다.

한국전쟁 기간에 많은 미군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하였다. 그렇다고 해도 미국은 미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파견되었고 전쟁을 치렀다.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관념에서 정조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었다. 전쟁으로 나라가 피폐해질 때까지만 해도 이러한 관념은 진하게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아내와 누이들의 정조를 그들에게 주었다⁹⁾. 일본 군대가 심어 놓았던 매춘문화는 해방 이후 전쟁기를 거쳐 미군에 의해 또 다시 반복되고 기지촌의 매춘문화 시대를 이루었다. 미군의 기지촌문화 정착과정은 과거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한국의 국토는 광역의 기지촌¹⁰⁾으로 형성되어 갔다.

미군들은 미국 군대의 관할에 관한 한미협정의 결과 치외법권을 누릴 수 있어 이를 악용하였다. 그들은 기지촌의 여성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상당수 여성들을 농락하고 유린하였으나 치외법권의 특혜로 인해 사역이나 본국송환, 불명예 제대 등 가벼운 처벌로 처리되었으며 그러한 상황은 오늘날(1995)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전쟁 이후 농촌의 급격한 피해와 그에 따른 농촌 경제의 빈곤, 그 속에서 남자들은 막노동으로 삶의 터전을 찾으려 애썼지만 여자들에게는 당시 한국 사

9) 김형운, <우리 누이의 매물은 담요 위에 선 환락의 도시>, 『뿌리깊은 나무』 (1980.2), p. 86

10) 한국의 기지촌은 부평, 부산의 서면일대, 하야리아부대 주변, 해운대의 탄약부대, 포천군의 동두천, 영북면 운천리, 의정부, 서울 용산의 미8군 본부, 평택군 송탄의 신장리, 오산, 대전, 대구, 왜관, 군산, 목포, 진해 등으로 확산되어 갔다. 기지촌은 양공주를 중심으로 미군들이 주 고객이 되며, 술집, 미군 부대, PX 에서 흘러나온 외제품 판매점, 암달러상, 포주, 양공주를 고객으로 하는 각종 업종들(미장원, 세탁소, 양복점, 양품점, 사진관, 기념품점, 초상화점, 당구장, 국제 결혼중개업 사무소 등)이 그 주변부에 들어서서 공생공영하게 되었다.

회에서 마땅한 일터를 찾기가 어려웠다. 생존과 가족 부양이라는 의무감,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삶을 견디어 나가는 방법으로 터득하고 찾아낸 것이 몸을 파는 길이었다. 한국 매춘의 진정한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본고에서는 미군 기지촌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갖가지 상황들을 기지촌 소설 속에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가를 기법적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우리들 스스로가 반성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지를 다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냉혹하게 반성하고 비판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기지촌 소설의 기법적 특성

거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빈궁과 좌절을 이겨내려고 안간힘을 썼던 한국 민족에게 미군의 기지촌 주변 상황과 매춘의 문제는, 40년대 말에서부터 비롯하여 90년대 중반기에 접어든 지금까지 미해결과 유보와 방기(放棄)의 침전물로 남아 있다. 미군의 기지촌 주변 상황과 삶들이 어떻게 한국 소설 속에서 엮여지며 형상화하는지 그 기법적인 특징들을 탐색해 보기로 한다.

II-1. 기지촌 소설의 서사구조

(가) 철저한 배제의 역학-빛과 어둠의 양분법

푸코는 우리 사회가 동일자(同一者)와 타자(他者)들을 나누는 복잡한 체계로 되어 있음을 지적했다¹¹⁾. 그 나눔의 체계 속에는 '가치판단'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데 그 가치판단은 권력의 문제들을 대동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눔의 이 편과 저 편에 존재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깊은 골이 패여진다. 나눔을 통해 스스로를 정립하는 자는 동일자가 되고 그 나눔의 경계 밖으로 밀려나간 자는 타자¹²⁾가 된다. 이들은 존재론적인 분절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현존재의 양상이

11) M. Foucault, *L'Ordre du discours*, (이정우 역, 『담론의 질서』, 새길, 1993)

12) 푸코는 타자란 광인, 병인, 과학으로 정립되지 못한 지식들, 범죄자들, 여자들과 아이들 등 모두 배제되어 왔던 존재들이라고 지적했다. M. Foucault, 같은 책,

다. 일상적인 삶의 양상에서 또는 물리학적인 분절에서 나누어지는 존재들, 그리고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지는 생물학적인 분절이나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조아로 나누어지는 19세기 정치경제학적 분절 등등 많은 분절의 양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을 나누고 분절시키는 가치의 척도는 극히 비객관성을 띠고 있다고 푸코는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동일자 안에서 가지정립적으로 사유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동일자의 바깥에서 사유하는 것을 원한다. 그의 사유는 동일자와 타자가 만나는 극한선상에서 성립한다. 그의 사유를 '바깥의 사유', '타자의 사유'라고 일컫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¹³⁾.

삶의 터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밥을 얻으러 다니는 거지 소년, 녀마주이, 양색시, 잡상, 뽕꾸, 전달, 포주, 양키물건 장사꾼, 뚜럭잡이, 장물애비 등 오늘날도 내일도 없이 좌표를 상실한 전후의 '떠돌이 사람들', 그들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가는 기지촌. 그 기지촌은 철조망 저편의 세계인 미군 부대와 철저히 분절되어 있다는 것이다. 세계는 권력과 물질의 무게에 따라 분절되어 있다. 미군 부대의 철조망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부랑민들은 그 철조망 밖에서, 미군 부대의 담벼락 밖의 어둡고 음습한 곳에서 서식하는 곰팡이와 같은 존재들이다.

오상원의 「보수」에서 미군의 기지 주변에 서식하는 존재들은 바락크촌을 이루고 있는 빈민들이다.

바락크촌이었다. 전쟁이 낳은 유일한 부산물인 것이다. 그리고 이 부산물은 외국군에 의해서만이 그 명맥이 이어져가고 있었다. 모든 것으로부터 제외된 영역, 그러나 그 것처럼 살기 위하여 자기에게 충실한 곳은 없었다. 더욱이 낮과 밤이 바뀌어진 이 제외된 영역 속에서는, (...) 한 외국 동료가 허리띠를 채 챙기지도 못 하고 방문을 나서기가 바쁘게 또 다음 동료가 들

p. 65

- 13) 푸코는 세계가 나눔의 원리로 분절되어 타자와 동일자로 나누어지는 것이지만 동일자와 타자가 갈라지는 경계상에서, 또는 동일자와 타자가 만나는 극한선상에서 사유하고자 했다. 이는 주체의 분열을 통해서 주체로 구성되고자 했던 라캉의 이론과도 맞먹는다. 바흐친의 경우, 주체는 자신안에 주체와 타자를 함께 안고 있는 그런 주체로서 주체의 외부현존성(Vnenakhodimost)을 주장한다. 결국 타자와 주체의 경계면에서, 달리 말해 '밖에서' 존재하고자 했던 푸코의 사유와 궁극적으로는 한 맥으로 상통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어선다.

— 오상원, 「보수」(《사상계》, 1959. 5)

바라크촌을 이루고 있는 이 곳은 기지촌의 초기 양상이다. 기지촌은 현대쪽으로 가까와질수록 규모화되고 촌락화된다. 50년대 중반기를 넘어서면서부터 쓰여지기 시작한 기지촌 소설들을 보면 오상원의 「보수」에서 보여주듯이 기지촌은 한 촌락의 양상을 띠고 나타나지는 못했다. 미군의 기지로부터 배제당한 것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미군의 엄중한 철조망 밖에서 바라크로 열기설기 만들어 놓은 집들로, 소위 '바라크촌'을 형성하고 사는 부랑민(浮浪民)들이었다. 그들 부랑민들이 하는 일은 도둑질과 매음과 도박, 술주정, 싸움질들이 전부였다. 그들은 철저히 '타자들'이었고, '동일자'들의 영역에서 배제된 집단이었다.

초기의 기지촌 소설들에서는 배제된 영역 저쪽의 세계, 소위 미군 부대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금기의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보수」에서는 양색시들과 육체적인 매매를 하는 외국 군인의 이야기를 지극히 표피적으로 서술하고 있을 따름이다. 철로 속으로 철조망을 뚫고 들어가, 열차가 멎었을 때 미군의 군수품을 훔치는 바라크촌의 떠돌이들. 그들은 미군의 보초병에게 들리면 총살당하고 만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목숨을 담보하는 한계상황에서 그들은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도둑질을 감행한다.

도둑질을 하는 것은 비단 한국인 부랑민들만이 아니다. '미국인들은 술과 재집을 사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고 한국인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을 한다(오상원, 「亂影」, 1956)」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으로 물리는 것은 오직 한국인뿐이다. 미군은 그 한국인을 '슬랙키 보이(slacky boy)'라고 일컫고 깡그리 도둑으로 몰아부친다. 오상원의 「보수」에서 윤씨는 아내의 양공주 노릇을 도와주는 뚜쟁이 노릇을 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상대로 매춘행위를 하는 아내의 정사장면을 문틈으로 구경하는 위인이다. 1920~30년대의 매춘의 양상이 드러나는 김동인의 「감자」(1925)나 현진건의 「정조와 약가」(1929), 김유정의 「소낙비」(1935)같은 소설에서도 아내를 매춘행위로 몰아 넣는 남편들이 등장하고 있었다. 그들의 윤리의식은 마비되어 있었고, 인간의 육체를 환전(換錢)의 수단으로 삼았다¹⁴⁾. 그들에게 있어 매춘과 인신매매는 매우 정상적인 것이었고, 일상화

14) 장병호, <식민지시대 매춘제재 소설의 고찰>, 『청람어문학 3』(1990. 10), pp.

된 관습으로 나타났다. 그들의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도덕적, 윤리적 반성의 대상이 되는 법이 없었다. 1920~30년대의 이러한 매춘 양상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양색씨들의 매춘행위가 나타나는 기지촌의 소설과, 1920~30년대 식민 상황의 매춘 사실에서 독자가 느끼는 감각과 인식은 사뭇 다르다. 그것이 기지촌 소설이 가지는 철저한 배제의 역학이며 비극성이라고 할 수 있다.

OFF LIMITS의 세계는 오상원의 「황선지대」(《사상계》, 1960. 4)로 넘어 오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OFF LIMITS YELLOW AREA. 여기는 전쟁과 함께 미군 주둔지 변두리에 더덕더덕 서식된 특수 지대다. 흡사 곰팡이와 같다. 미국 군인이 먹다 버린 한 조각의 치즈, 비스킷 귀퉁이, 빵껍질에도 빈틈없이 시궁창같은 습기와 함께 곰팡이는 무섭게 번창한다. 곰팡이는 살기 위해선 공간을 하지 않는다. 하찮은 조그만 매뉴통 껍질이라도 그들이 충분히 생명을 불일 수 있는 밀판이 된다.

— 오상원, 「黃線地帶」

십미터 간격으로 담벽 또는 나무 판자에 커다랗게 붙은 표지판에는 'OFF LIMITS YELLOW AREA'라고 쓰여져 있다. 원래 'yellow'라는 단어 자체에는 '음산하고, 야비하며, 비겁하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전염병 환자가 있다는 표시(Yellow Flag)로도 쓰인다. 미군 주둔지 변두리에 황색인종들이 서식하는 더럽고 음산한 지대, 온갖 질병과 성병의 가능성들로 우글거리는 지대가 황선지대이다. 미군 기지의 어둡고 더러운 변두리에 더덕더덕 서식하는 곰팡이와 같은 존재. 그들 부유(浮游)하는 전쟁의 피해자들은 미군이 먹다 버린 한 조각의 치즈와 빵껍질의 음습한 습기 속에 붙어 사는 떠돌이 인생들이다.

'미군 출입금지 구역'이라고 씌여진 빠아 '블랙 카트'에는 술 취한 사람들의 떠들썩한 고함 소리와 싸움질이 끊일 줄 모른다. 이중 삼중으로 둘러쳐져 있는 철조망 저 쪽 미군들의 세계에는 콘센트마다 전등불이 휘황찬란하게 켜져 있고, 고층 경계 등의 강한 불빛이 멀리까지 내리 비치고 있다. 그러나 철조망 이쪽의 황선지대에는 무덤 속처럼 침울한 어둠이 있을 뿐이다. 'OFF LIMITS'라

는 금기 상징의 기호는 빛과 어둠을 엄숙하게 분절하고 있다. 두꺼운 철조망은 무릇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이다. 이들 부랑민들의 삶의 모습은 우리 민족이 겪고 살아야했던 참담한 역사의 현장이었다.

술집 '블랙 캐트'에 모여 사는 사나이들은 철조망 저쪽 세계를 향하여 방노를 자행하고 뒤틀린 심사를 내뱉는 인물들이다. 술꾼 중 하나인 '정운'이라는 사나이는 북한에서 공산당의 본거지를 포위하여 시위를 벌이던 학생 대표였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월남한 그는 남한의 정치에도 역시 실망을 느끼고 이 곳 기지촌까지 떠밀려 왔다. 정운은 학생운동을 함께 하던 '영미'를 기지촌에서 우연히 만났다. 영미는 전쟁 중에 군인들에게 강간당하고, 남동생과 함께 이 곳 기지촌으로 흘러 들어와 몸을 파는 여자가 되었다. 정운은 영미를 구해내기 위해 미군 부대의 창고를 털 계획을 꾸민다. 정운은 '두더지', '곰새끼'라는 별칭을 가진 사내들과 함께 땅굴을 파고 천신만고 끝에 미군 부대의 창고 밑바닥을 뚫었으나, 창고에는 먼지와 휴지 조각 뿐이었다. 미군들이 창고를 이동시킨 것을 몰랐기 때문이었다.

기지촌의 부랑민들은 미군 부대의 물자를 훔쳐내어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겠다는 희망을 가졌었다. 그러나 그들의 꿈은 끝내 실현되지 못하고 절벽 끝으로 떠밀려 와 있을 뿐이다. 미군과의 육체적 교섭을 통해 돈을 벌겠다는 여자들이지만, 이 것 역시 삶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이들의 무모한 계획이 진행될수록 현실은 더 강하게 비극의 아이러니를 산출할 뿐이다.

빛과 어둠의 양분성(兩分性)은 1950년대를 지나 1960~70년대, 1980~90년대를 넘어오면서도 그 철저한 배제의 논리를 지키면서 존속된다. 미군의 엄중한 철조망을 지키던 'OFF LIMITS'의 기호는 1980년대 박석수의 「철조망 속 휘파람」(1982.10)으로 오면 철조망 주변에 판자촌을 이루고 있는 기지촌의 한국인으로 대체된다.

'돼지형'이라고 불리던 소년의 아버지는 미군 기지의 철조망을 지키기 위해 선택된 민간인 보조병이다. 기지촌 사람들은 미군의 보조병을 두고 '개보초'라고 일컫는다. 송아지만한 개를 대동하고 미군 부대 철조망을 지키는 아버지는, 낮에는 자고 밤에는 미군 부대의 OFF LIMITS를 대체하는 시물라크르가 된다. '낮에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지키고 있는 밤에는 어느 누구도 부대 물품을

빼낼 수가 없었다'는 소년의 말 그대로 아버지는 미군의 충실한 '개'였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밤사이 깊은 칼침을 맞고' '송아지 만한 개'와 눈썹인 철조망 밖에 피를 쏟은 채 죽어 있었다. 소년은 아버지의 주검 앞에서 껌을 질정거리며 지절이는 MP들을 때려 눕히기에는 너무 나이가 어렸다. '아는 놈 짓이겠지. 하여간 한국인들 말썽은 끊이지 않는단 말이야.'하고 저희들끼리 '씨부렁대는' MP의 꼴들을 보면서 어머니는 전신을 부들거리며 떨고 있었다.

기지촌을 지키기 위해 고용된 한국인(기지촌 사람)은 '송아지 만한 그 미군의 개'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는 미군을 지키는 한갓 도구요 소모품이요 대체물이었다. 그는 타자의 세계에 있는 한갓 시물라크르로서의 '위협 신호'일 뿐이었던 것이다. '개보초'인 아버지를 죽인 것은 창고를 털고자 하는 미군의 앞잡이거나 미군의 하수인일 것이 분명했다. 결국 살인은 '동일자'로서 자처하는 철조망 저 쪽 세계의 양키들이 저지른 것이었다.

(나) 강렬하고 거친 문체

철저한 바깥세계로 몰려났던 기지촌의 한국인들도 미군 부대 안으로 섞여들어 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지촌은 GI들에게 있어 더욱 더 '더러운 한국인'들의 세계로 부각된다. 기지촌은 만행을 저지르면서도 치외법권의 특혜를 누릴 수 있는 미군의 천국이 되었다. 추상적으로 서술되어 오던 미군들의 만행과 폭력은 초기의 기지촌 소설보다 현대쪽으로 넘어올수록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나)-1. 고발과 울분의 운어들

미군의 만행을 폭로하는 문장들은 거칠고 강렬한 고발성의 문체로 나타난다. 한국인의 역사 속에서 끈끈한 울분으로 직조(織造)되는 분노의 정서는 미군의 행태(行態)나 행위에 대한 서술을 할 때 어김없이 거칠고 강렬한 문체로 형상화한다. 미군에 대한 분노의 감정은, 자연 미군의 상대가 되는 기지촌의 윤락녀에 대해서도 뒤엉켜서 나타난다.

망할년 같으니! 다시 한 번 그는 경멸적인 시선을 점점 사라져가는 여인의 뒷 모습에 쏘아 부치고(…) 갈보년 같으니! 그는 터져 나오는 호흡을 다시 한 번 입 속에서 죽였다. (…)'「경리계로 와서 돈을 받아 가라!」 기름이 핏팅한 붉은 얼굴, 쉼-잉 타바코를 우물우물 씹으면서 거무스레한 침을

자주 퇴배으며 내던지던 양키 상사(上士)의 말투

- 오상원, 「亂影」(《현대문학》, 1956. 3)

전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보이는 「난영」의 한 부분이다. 미군 부대에서 노무자의 감독으로 일하던 ‘그’는 한국 노무자들이 도둑으로 누명을 쓰고 해고를 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분노하여 양키 상사에게 대항한다. 그는 마침내 일자리를 잃고 만다. 미군 부대에서 양키 상사의 정부(情婦)가 되어 근무하는 여자(송씨의 처)를 두고 그는 ‘갈보’라는 호칭을 거침없이 내뱉는다. ‘송씨’는 아내가 미군 부대에서 가지고 나오는 양키 음식들을 친구들에게 자랑한다 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처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며 아내를 치하한다. 울분으로 찬 한국의 지식인은 이러한 송씨를 차마 미워할 수도 없다. 송씨에 대한 평가를 독자들에게 유보하는 ‘미해결’과 ‘유보의 문체’를 구사할 따름이다.

거기 쫄뜨기 양키들은 몇 사람만 빼놓고 모두 몇번씩 따링 누나하고 붙어먹는 일이 있어, 아무 때고 쏘리가 가기만 하면 「웰킴 쏘리 킴」이다. (….) 그런데 채수가 없자니까 하필 오늘은 부르도크가 정문에 떡 버티고 서 있다. 놈은 아직도 화가 안 풀린 모양이다. 쏘리가 들어갈려고 하니 놈이 심술사납게 노려보더니 「까탸, 가라!」고 소리치며 칼빙총을 차가닥 재어 겨누는 것이다. 오늘따라 놈이 부라리는 눈이 더욱 무섭다. 오늘은 서빨리 굴다간 정말 놈의 총에 맞아 죽을 지도 모른다. 사실 이런 곳에서 양키가 한국 사람 하나둘 쫄 쏘 죽여도 고만이다. 요전에도 켄텐 캠프에 웬 한국사람이 열신저리는 것을 보초가 쏘 죽였지만 엉구렁탱이에 쏙삭 해 치고는 누구하나 아랑곳 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 송병수, 「쏘리 킴」(《문학예술》, 1957. 7)

아직도 ‘서산 너머 햇님’을 노래부르며 어머니에게 응석이나 부릴 나이의 어린 소년(쏘리 킴)이 전쟁 중 고아가 되어 기지촌까지 굴러오게 되었다. 중공군의 참호였던 땅구덩이 속에서 미군을 상대로 몸을 파는 따링누나(양공주)에게 쏘리 킴은 미군을 소개해 주고 은전을 받아 먹는 소년이다. 소년의 눈에 비친 기지촌의 현실은 청계천 다리 밑에서 왕초에게 심한 구타를 당하던 시절이나 배가 고파 전될 수 없던 고아원 시절보다 만족스럽게 느껴진다. 소년이 현실을 그런대로나마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소년은 '따링누나'와 함께 어디로든지 '저 산너머 햇님'을 신나게 부르며 마음 놓고 살아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 소년에게 있어 기지촌의 양공주인 따링누나는 마냥 따뜻하고 가없고 아름다운 여자일 뿐이다.

소년의 순진한 시각은 배가 고파 전될 수 없는 한국 민족의 시각이요, 가난한 살림 속에서 딸의 가출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던 한국 어머니의 한서린 눈빛이다. 극악한 빈궁 속에서 미군에게 기생하는 기지촌의 부랑민들. 미군들은 소년 하나쯤 칼빈 총으로 쏘아 죽여도 문제시될 것이 없는 것이다. 기지 주변에 얼씬거린다는 이유만으로 미군 보초가 한국인을 죽여도 문제가 될 것이 없었던 것이 한미행정협정의 불균등한 내용의 결과였다.

쏘리 킴에서 야비한 '은어'와 '비속어'들이 거침없이 구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감각은 언어로 차마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요 연민의 정서다. 소년의 순진한 시각에 비친 사건들의 서술은 '순진의 아이러니' 기법을 동원하여 소설의 목소리를 다성적으로 엮어 나간다. 독자는 소설 속에서 '서산너머 햇님'을 노래하고 싶어하는 순진한 소년과, 양공주에게 미군 GI들을 소개해주며 담배를 피우고 돈을 훔쳐 날아난 '딱부리'에게 '더럽다 새끼야 생전 양키 궁둥이나 훑아 먹어라'고 고함을 지르는 불량한 소년을 함께 읽어내게 된다. 그 불량성의 소년은 전쟁 중 다락에 숨었다가 빨갱이들에게 들켜 죽은 아버지와, 폭격에 무너진 대들보에 깔려 죽은 어머니를 가진 고아 소년에게 묻혀 함몰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게 된다. 송병수의 「쏘리 킴」은 R. 파울러의 정신문체(mind style)¹⁵⁾란 용어를 굳이 빌지 않더라도 그 거칠고 비속한 표면상의 문체 저 쪽에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인간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몸뚱아리를 가릴 옷이 없고 벽돌 조각이 고기덩이로 보일만치 배가 고프운 젊은 계집에게 숙녀가 되고 정숙을 바랄 수 있을까? 전쟁으로 해서 나는 고아가 됐다./배가 고팠다. 찢든 계집애가 살을 가릴 옷이 없었다. 이것이 내 죄가 될까?/그래서 나는 「안나」라는 갈보가 됐다./한끼 밥을 먹기 위해서 피

- 15) 로저 파울러는 사물에 대한 가치판단이 작가의 토운을 결정하고, 이들이 축적되면 하나의 세계관을 형성하게 된다고 본다. 그는 이러한 세계관에 의해서 형성되는 문체의 문체를 정신문체(mind style)라고 일컬었다. 이것은 W. Kayser의 'Haltung'(태도)이론과도 상응하는 논리다. Roger Fowler, *Linguistics and the Novel*(김정신 역, 『언어학과 소설』, 문학과학사, 1985, p. 101)

를 뿔아 팔 듯 나는 내 몸뚱아리를 파먹고 스물여덟을 살아왔다./주어진 한
생명을 성실히 살아온 죄가 같보라는 직업에 있다면 그건 결코 내가 저야
할 죄가 아니다.

— 오영수, 「안나의 유서」(《현대문학》, 1963. 4)

「안나의 유서」는 '안나(미스 윤)'라는 이름을 가진 동두천의 한 양공주가 자
궁암으로 죽어가면서 양공주 생활을 마감하는 유서의 형식으로 쓰여진 작품이
다. 기지촌 소설들이 삶의 율타리 밖으로 밀려난 '타자'들의 삶을 그리고 있다
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따라서 사고의 깊이가 비천하고 감각적이며 삶의 형태
가 극단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은 보편적인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몸을 가릴 옷
이 없고 벽돌조각이 고기로 보일 만치 먹을 것이 없는 한계상황 속에서 한국의
딸들이 갈 곳은 어디였겠는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쓰여진 글들이 우아하고 유
려한 문체로 이루어질 수 없음도 당연한 사실이다. '안나'라는 전쟁 고아는 매
춘녀가 되어 '죽음'을 맞이했다. 이 순간에 우리가 느끼는 정서는 '자연질서의
회복'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이며 문학원론적인 쾌락일까? 작가는 이러한 '비
극적 쾌락'을 독자들에게 안겨 주기 위해 '유서'라는 문체를 기꺼이 사용하였을
까? 앞에서도 서술하였듯이 여기에 기지촌 소설의 배제적 역학과 비극성이 다
성적으로 도사리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남정현의 「분지(糞地)」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용기와 결단을 요구하는 내용
으로 되어 있다. 주인공은 '외인촌'에 살고 있는 미군의 아내를 유혹하여 강간
한 산 속에서 마침내 자신도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산
속으로 도망을 친 한국 남자를 죽이기 위해 미군이 산 속에다 폭파 장치를 해
두었기 때문이다.

이 건딜 수 없이 썩어빠진 국회여 정부여, 나 같은 것을 다 뺄로 알고
불잡고 늘어지려는 주변의 이 허기진 눈깔들을 보아라. 너희들은 도대체 뭇
을 믿고 밤낮없이 주지 육립 속에서 헤게모니 쟁탈전에만 부심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한민족(韓民族)을 살리기 위해서 원조를 해 줄 놈들은 깃 소리없이
원조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놈들은 당장 지옥에다 대가리를 처박으라고
전세계를 향하여 피를 토하고 고꾸라질 용의는 없는가. 말하라 말하라.

— 남정현, 「분지(糞地)」(《현대문학》, 1965. 3)

남정현의 「분지」는 당시 출판금지를 당하고 재판받을 판이 된 작품이기도 하

다. 미군 병사의 아내를 감히 강간하고, 이제 폭파의 시각이 분초를 다투며 다가서는 죽음 직전에서 한국의 젊은 청년은 '어머니'를 찾는다.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미군의 환영대회에 나갔다가 미군에게 능욕을 당하고 돌아온 어머니. 절망으로 이지러지고 짐승처럼 해괴한 소리를 치며 돌아온 어머니는 갈갈이 찢어진 옷을 활활 벗어 던지며 어린 소년에게 알몸으로 다가섰던 것이다.

「자, 보란 말이다. 이놈의 새끼야. 아, 내 밀구멍을 좀 똑똑히 보란 말이야. 아이고 분해. 이놈의 새끼야 좀 얼마나 더러워졌나를 눈을 비비고 좀 자세히 보란 말이야」

— 남정현, 「분지」

어머니가 소년에게 보인 그 끔찍하게 확대된 자궁. 그것은 짓밟히고 더럽혀진 조국의 모습이었다. 광녀가 되어 죽음의 길을 택한 어머니를 소년은 기억 속에서 한사코 몰아내려 안간힘을 썼던 것이다. 그러한 어머니. 한없이 지워버리고 싶었던 어머니의 영상이 죽음의 순간에 어쩔 수 없이 절박한 모습으로 다가서는 것이었다. 통곡으로 울부짖으며 불러 보는 '어머니'의 이름. 그것은 참을 수 없는 울분과 통곡의 민족 정서로써 불러보고 싶은 조국의 이름 그것이였다.

신상웅의 「분노의 일기」는 주한 미8군 부대의 카뉘스(미국 육군에 배속된 한국 육군)로 근무하게 된 '김내위'의 부대 생활이 기록되고 있다. 송병장의 침대에 오줌을 싼 크리스 이등병을 두들겨 패 준 죄가로 국편(한국 군대로 편입)이 되고 재판에 회부되는 억울함. 미군을 유혹하기 위해 미8군 부대 철조망 밖에 새까맣게 물려 있는 양공주들. 한국인들은 모조리 스테키 보이(도둑)라고 말하는 미군들. 도시의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서, 「접근하면 발포한다」는 팻말을 군데군데 붙여 놓는 미군 기지의 모습……. 이런 양상들로 인해 울분과 거친 문체로 얹혀 작품을 형성한다. 미제 물건과 영어 회화에 미쳐있는 한국인들. 미군들은 한국 여자라는 기지촌의 매춘녀 말고도 여대생까지도 혈값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말한다.

「헤이, 똥통에 빠진 구옥(東洋에 대한 모욕적 卑稱).」

「더러운 아가리에선 더러운 말밖에 나올 게 없지. 이 무식한 양키 쫄매기.」

「국편될까 무서워 욕지거리도 못하는 쓸래키 보이야.」

「야. 이 엉큼한 암여우 같은 새끼야. 네가 지금 딛고 서 있는 땅은 누구

네 땅이냐. 바로 너같은 지저분한 새끼가 슬래키해 간 우리 땅이란 걸 잊었니. 이 야비한 양놈아.

— 신상웅, 「분노의 일기」(1972)

비속하고 유치한 입씨름을 한 저녁 크리스 이등병(미군 병사)은 송병장의 침대에 쥐를 잡아 넣고 오줌을 찼다. 맞붙어 싸운 결과 송병장은 국편이 되고 한국 군대의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미군과의 정면 충돌을 이같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친 문체는 초기 기지촌 소설에서 볼 수 없는 현상이었다. 1950년대 말 오상원의 「난영」에서는 미군과의 충돌을 '양키 상사의 말투, 말다툼, 해고'라는 정도로, 상징적이며 절단된 문체적 특성으로 나타냈을 뿐이었다. 신상웅의 「분노의 일기」 이후로 이런 노골적 울분과 쟁투의 문체들은 계속하여 그 모습을 드러낸다.

“여보시오, 말로 할 수 있는데 왜 손찌검을 하시오. 힘없는 여자에게.”

내가 토니라는 젊은 병사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항의하는 순간이었다. “이 새끼……”

소리와 함께 나의 오른 쪽 고막에서 성능좋은 폭탄이 한 방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 ·)

“……넌 뭐야? 이 더러운 한국놈의 새끼야.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니 너어서 꺼져 버려. 죽여버리기 전에.”(· · ·)

“더러운 한국놈? 그렇게는 안 될게다. 이 더러운 양키놈아.”

그러면서 싸움의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테이블을 한 칸으로 힘껏 밀어내고 후로링쪽을 비켜섰다.

— 박석수, 「同居人」(《소설문학》, 1987)

‘내국인의 출입을 금함’이라는 팻말을 무시하고 한국인이 미국 전용의 클럽(파라다이스)으로 들어가는 것이 묵인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지촌의 한국인의 위상은 과거보다는 호전된 셈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 속에서 겪는 한국인의 수모는 초기 기지촌적인 분위기와 다를 것이 없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1990년대로 이어지는 기지촌 소설들에서도 그 고발과 울분성의 문체는 지속된다. 이 거친 울분과 고발지향성의 문체는 신상웅의 「분노의 일기」 이후로는 상당히 지적인 분위기를 가지게 된다. 기지촌 주변의 인물들이 전쟁 직후의 떠돌이 삶의 형태를 벗어나서 기지촌을 둘러싸고 정착하기 시작했으며, 원주민들까지도 기지촌을 형성하는 요인들로 변화해가고 있었

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이 양상은 박석수의 「썩고개」로 넘어오면 더욱 뚜렷해진다.

(나)-2. 거친 성의 묘사와 포르노적 문제

기지촌 소설들에서 매춘 행위를 묘사하는 부분은 시간을 거듭할수록 더욱 노골적이 된다. 성은 거칠게 묘사되고 성기의 묘사도 직접적이다.

한 외국동료가 허리띠를 채 채기지도 못하고 방문을 나서기가 바쁘게 또 다음 동료가 들어선다. 그리고 갓 나간 동료가 피부는 정육의 불질이 채 가지지도 않은 그 여자의 살결 위에 자기 욕정을 퍼붓기 시작하는 것이다. (---) 그녀는 점점 민규에게 음탕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빠자마 아랫쪽을 훌쩍 걷어헤치며 하반신을 내어 던지듯 민규에게 맡겼다.

— 오상원, 「보수」

기지촌의 매춘은 비록 미군만을 상대하는 것은 아니었다. 1950년대 말에 이처럼 거칠고 노골적인 성의 묘사를 하면서도 통속소설로 함몰되지 않았던 것은 '기지촌'이라는 명목을 내세움과 동시에 환경결정론이라는 이름에다 이들을 엮어놓아 기대어 놓았기 때문이었다.

「아저씨, 쉬었다 잘라요? 팔등신으로 기맥히게 빠진 이찌루가 있는데 삼삼하리라우.....」

「.....」

「그라면 하프 앤드 하프로 놀라요? 좌우당간에 한 번 빨아댄다 하면 전 후좌우상하로다 기맥히게 놀아 뿌릉께..」

「.....」

「꼭 단골구멍이라야 맞인가? 이래 배두 골패쪽에 기름이 번지르르하다구. 담갔다 하면 빨 생각 없을거유. 오늘은 국산으루다 물꼬를 막고 싶은데 염세사 없으셔?」

— 천승세, 「荊狗의 悲鳴」(1973)

기지촌 소설은 1970년대와 1980년대를 넘어올수록 거칠고 노골적인 성의 언어들로 나타난다. 커다란 미국산 세파트 개에게 물리는 한국종 황구의 모습. 개들의 교미라는 알레고리를 통해 천승세의 「황구의 비명」은 의정부의 용주골 기지촌 살들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킨다. 「황구의 비명」이라는 알레고리적 의미는 박석수의 중편소설 「동거인」으로도 연결된다. 약하고 힘없는 존재들이 부유하고 힘센 종족에게 억눌리고 꺾박받을 수 밖에 없다는 평범한 우주의 로고스

가 기지촌 소설에서도 어김없이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남자의 성기를 노출시킨 욕설을 소설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여자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언어는 흔하지 않았다. 윤정모의 「고삐」에서는 여성의 성기를 거칠게 노출시킨다.

-그럼 안으로 들어와요. 그녀는 역원을 따라 갔다. 주저할 필요가 없었다. 한 거지의 말이 그애의 머리카락을 잡는 듯 했다./네미, 우리도 보지나 달고 나올 걸./(..··)/-해인아!/-돌아가래잖아!/그리고는 문을 힘껏닫아버렸다. 바로 그 때 정인의 등뒤로 미군이 왔다./-다나!/미군이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가자 다시금 문이 덜컥 잠겼다./정인은 계단에 앉아 소리죽여 울었다. 그 애의 방에서 성교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 윤정모, 「고삐(1)」(풀빛, 1988)

술집으로, 빠아로 떠돌던 「고삐」의 주인공 '정인'은 법원리 기지촌의 양공주였다. 그러나 이복 여동생 '해인'에게만은 그 진창의 길을 걷게하고 싶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스트립쇼를 하면서도 '해인'이 하나만은 공부를 시켜 훌륭한 가수로 만들겠다는 희망으로 산 정인이었다. 그러나 해인은 이미 하야리야부대 기지촌의 양공주가 되어 있었다. 금기시되어온 '성교'라는 용어가 거칠게 등장하고, 여성의 성기 비칭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등 폭력적 언어구사를 통해 기지촌 소설의 분위기와 그 문체 특성을 더욱 강렬하고 거칠게 형성해 나간다.

그가 지갑을 찾아와 50불짜리 여섯장을 탁자위에 꺼내놓고 손가락으로 침실을 가리켰다. 거기서 행위가 끝나면 집어가란 뜻인가 보았다. 3백불이면 괜찮은데 해 봐? (...) 그녀는 침실로 들어갔다. 장교가 콘돔을 착용한 뒤 그녀를 끌어 안았다. 이미 그의 눈은 욕정으로 파랗게 끓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그의 성기는 몸집만큼이나 거대했던지 좀체 삽입이 되지 않았고 (...) 어떻게든 해보려고 혼자 끄깁대던 미군은 그래도 안되겠던지 크림을 바르고 다시 시도했지만 결국은 포기하고 벌렁 자빠져 누웠다.

- 윤정모, 「고삐」

기지촌 여성의 매춘 현장을 이처럼 적나라하게 서술한 소설은 없었다. 윤정모의 고삐는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송곳같은 문체로 독자를 휘몰아 세운다. 독자는 이 모든 행위의 책임이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라는 착각 속에 걸려 들고 만다. 거둬 서술하거니와 기지촌 소설의 포르노적 문체 양상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소설들을 통속소설로 매몰시키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라는, 그리

고 민족이라는 동류의식이며 그들을 함께 안고 있는 '타자적 사유'의식이 한국 민족의 가슴 속에 침전되어 있는 때문이다.

(나)-3. 작중인물의 은어적 별칭

기지촌 소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작중인물들의 이름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다. 그들은 분명 본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어성을 띠는 언어들로 호칭된다. '노래기, 곰새끼, 때장, 두더지, 딱부리, 뽕족코, 촌뜨기, 왕초, 똥만이, 부르도크, 찢뚝이, 뚜러꾼, 놉보, 개보초, 쪽배, 살갓이, 돼지형 등…….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그 본명은 간 데 없이 숨겨져 버린다. 그들의 가면적인 별칭만 스토리 속 현실을 누비고 들어와서 잡다하고 혼탁한 삶의 현장을 누빈다. 그들은 그 습습하고 혼탁한 삶의 마당에서 한바탕 삶의 가면극을 벌인다. 작중인물들의 이러한 별칭들은 은어와 비어들의 난잡한 축제 분위기를 돋구면서 삶의 본질과 그 가치를 박탈당한 기지촌의 인생양태를 암유적으로 노래한다.

(다) 기지촌 소설과 이데올로기

알튀세는 이데올로기를 객관적인 물질적 실체로서 파악하며, 따라서 객관적 실체로서의 이데올로기 층위는 사회구성체의 한 층위로 상정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알튀세에 있어 이데올로기란 개인이 그들의 실제조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상상적 관계의 표상¹⁶⁾으로 규정된다.

한국 사회는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이라는 이중적 모순¹⁷⁾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지배세력은 제국주의에 대한 매판적 세력과 국내의 지배세력들로 구성되었고, 피지배 민중은 피지배계급과 민족적 세력들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지배세력과 피지배 민중은 중층적 구성을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16) Louis Althusser, "Ideology and Ideological State Apparatuses",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7, p. 153

17) 계급모순은 자본제 생산양식이 관찰됨으로써 자본과 노동 사이의 모순을 기본으로 하며 시기에 따라 변화를 보여 왔다 일제시대에는 지주와 소작 사이의 종봉전적 모순이 자본제적 모순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었으며 1960년대 이후에는 국내 독점자본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하여 자본제적 모순은 더욱 심화되었다. 민족모순은 해방 이전의 일제의 이해와 해방 이후의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해에 대한 한국 민중의 저항으로 나타났다. 김진균 외, 『한국사회론』(한울, 1990) 참조

한국 사회의 이데올로기는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효과에 의해서라기보다 정치적 상황의 경향에 의존해서 그 기능을 행사해 온 것이다. 일제의 지배와 패망, 해방정국에서의 미국의 개입과 한국전쟁, 1960년대 이후의 급격한 독점자본주의의 발달, 1980년 광주민중항쟁등이 정치적 상황의 주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중속적 경제발전에 대해 정부는 발전이데올로기로서 그 본질을 은폐하고자 했으나 광주민중항쟁을 계기로 그 불길이 점차 폭로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현재는 기존의 지배이데올로기의 기능이 약화되고, 민중적 저항이데올로기의 기능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광주민중항쟁은 지배이데올로기가 가지는 허위성을 밝히고 미국의 본질을 분명하게 노출시켰다. 따라서 이는 저항이데올로기가 민주변혁의 총체적 전망 속에서 재구성되어야 함을 보여 준 민중항쟁이라고 할 수 있다¹⁸⁾.

앞에서도 서술하였거니와 일제의 지배와 패망의 흔적이 생생한 자리에 미군정의 깃발이 꽂히고, 거기에 잇따라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과 어깨를 견고한 한국의 매춘사는 그 운명을 함께 한 셈이다.

가난하게 살지만 훌륭한 조상을 두었다는 자부심 속에서 사는 ‘박첨지’(하근찬, 『왕릉과 주둔군』) 노인은 미군의 침입으로 인해 사회구조에 대한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의 양대 이데올로기를 짊어지고 죽어간 셈이다. 손바닥만한 논배미를 부치며 근근히 목숨을 이어가고 있지만 박첨지는 자기네 조상이 임금이라는 자랑을 가슴에 지니고 상투를 기르며 왕릉을 돌보는 것을 낙으로 하고 산다. 그러나 어느 날 머리카락이 노랗고 ‘턱없이 키가 큰’ 사람들(미군)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사건이 생기고부터 자부심과 낙은 사라지고 만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눈도 노란 빛깔이었던 것이다. 움푹 들어간 두 눈자위 속에서 노르스름한 눈동자가 기분나쁘게 반질거리고 있었다. 꼭 고양이 눈깔 같았다. (...) 코는 왜 저렇게 클까. 좁다란 얼굴을 코가 온통 차지하고 있는 듯 했다. (...) /「더럽게 생겨 먹었네./」박첨지는 이맛살을 찡그리며 슬그머니 얼굴을 돌렸다. (...) /서양사람이 왔다. 코가 빼죽한 서양 병정들이 왕릉옆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진 것은 해가 두어 뽕가랑 떠올랐을 무렵이었다.

— 하근찬, 『王陵과 駐屯軍』(1963)

18) 김진균 외, 같은 책, pp. 84-85

‘노란 빛깔’의 ‘고양이 같은 눈’을 가진 서양 사람의 모습은 박첨지에게는 한결같이 ‘더럽게 생겨먹은’ 못난 형상일 따름이었다. 미군에 대한 박첨지의 이러한 적개심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픈 아이들은 미군이 먹던 깡통이나 음식 등을 얻어 먹기 위해 ‘할로’를 외치며 그들을 따라 다닌다.

「나 주이소!」/「나 주이소!」/「할로 할로. 나 주이소예.」/손을 내밀며 떠들어 댔다./작자는 빙글빙글 웃으면서 깡통을 휘! 아이들 머리 위로 날렸다. 하늘로 솟아 오른 깡통이 포물선을 그으며 날아가자 아이들은 와아 소리를 지르며 앞을 다투어 몰려 갔다. 깡통이 땅에 떨어지자 아이들은 사정없이 그 위로 덮치는 것이었다./「으앗앗앗하……」/작자는 재미가 나서 못 견디겠다는 모양이었다. (…)

— 하근찬, 「王陵과 駐屯軍」

미군은 아이들에게 ‘give me’란 언어를 먼저 가르치고, 구걸의 역사를 배워 준 장본인이다. 박첨지가 상투를 끄덕거리며 작대기를 휘두르고 아이들을 향해 고함치자 아이들은 박첨지를 놀리면서 도망가고, 미군들은 손뼉을 치며 구경거리를 만난 듯이 좋아한다.

마을에는 양색시들이 등장하고 박첨지의 딸(금례)도 조금씩 그 모습이 양색시들처럼 변해 간다. 왕릉 위에서 성행위를 하는 미군과 양공주를 발견한 박첨지는 막대기를 휘두른다. 그러나 미군은 달아나면서 왕릉 위에다 오줌을 갈긴다. 마침내 양공주들을 따라 돈을 벌어 올거라는 쪽지를 남기고 딸은 홀연히 떠난다. 그러한 딸 금례가 ‘노란 탱자같은 혼혈아’를 안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딸의 모습을 보고 식음을 전폐하던 노인은 마침내 일어나서 왕릉의 담을 쌓기 위한 흙집을 지기 시작했으나 지게와 흙더미 속에서 쓰러지고 만다.

왕릉은 민족의 근원이요, 자존심의 상징이었다. 그 왕릉 위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씨 조선의 강화도조약 이후의 굴욕에 못지 않았다. 실로 한국인의 사회구조 속에서 엉켜 있었던 모순 덩어리. 계급과 민족의 이데올로기를 중층적으로 혼란하게 만들었던 표본이 이 작품 속에 응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주둔군의 기지를 위해 이 땅의 수많은 농토들과 도시의 한 복판이 강제로 박탈당한 사건은 「왕릉과 주둔군」 뿐만 아니라 박석수의 「同居人」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숲처럼 새까만 흑인과 대낮에도 텃복숭이 가슴을 드러내놓고 다니는 백인들이 함께 마을에 진주하면서부터 기지촌이 형성되고 K55 미공군 비행장이 건설되었다./그 사방 십리가 넘는 비행장 건설부지를 숲막과 논밭을 하루 아침에 징발당한 원주민들은 좌동과 서정리 목천쪽으로 밀려 나왔으며 나의 할아버지나 아버지도 예외는 아니었다. 할아버지는 일제시대부터 하시던 숲막이 그렇게 폐쇄되자 이듬해 횡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숲막처럼 땅밑에다 움을 파고 콩나물을 길러 오셨던 것이다.//그러니까 숲고개가 미군의 진주와 함께 겪은 수난 30년사는 '숲고개→쑥고개→썩고개'로 변모해 온 명칭이 보다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다.

- 박석주, 「同居人」

미군 기지의 확보를 위해 한국인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전답을 잃고 쫓겨났었다¹⁹⁾. 한국은 수천만 평의 땅을 미군의 기지로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기지 주변에는 수많은 한국 여성들이 유일한 생존수단으로 자신들의 '성'을 팔게 되었던 것이다²⁰⁾.

윤정모는 「고삐」에서 광주민중항쟁의 저항이데올로기를 기지촌의 매춘 이야기와 결합시키고 있다. 그는 완벽한 저항이데올로기의 실상을 소설을 통해서 보여준 셈이다. 작가는 기지촌의 매춘 행위는 미군의 본질을 보다 극명하게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전쟁 이후 지배이데올로기의 실상이 민중항쟁으로 노출됨과 동시에 은폐되었던 미국의 본질을 함께 파헤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윤정모는 「고삐」를 통해서 권력과 자본의 유착이 매춘을 양산하고 조장하는 적·간접적 요인이 됨을 역설하고 있다.

「고삐」의 주인공 정인과 해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사는 해방공간을 전후한 이 땅의 축조된 현대사일 것이다. 두 개의 상충하는 이데올로기를 가진 아버지들. 정인의 생부는 1945년 10월 인민항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있었고, 미군정 수사당국에 쫓기는 몸이 되어 월북했을 것이라는 추정 사실을 가진 위인이다. 아

19) 미군 기지의 확보를 위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전답을 잃고 쫓겨났던 한국인들은 당시의 한국 정부로부터 빚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1년 거치 10년 상환의 채권을 손에 쥐어 주었을 뿐이었다. 피해 주민들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법정 투쟁까지 벌였으나 1966년 한미행정협정이 체결되자 토지무료사용권이 적용되면서 모든 것이 목살되고 말았다.

20) 박종성, 같은 책, pp. 89-91 참조

이러니까제도 정인의 양부는 정인의 생부를 수사하러 다니는 미군정의 그나폴이었다. 두 아버지의 양구 이데올로기 사이를 오가는 어머니는 분명 조국의 모습이었고, 정인이 도리질하며 잊고 싶어했던 얼룩진 유년시절의 추억의 핵을 이루었다. 유년의 정인에게 미군들은 화려하고 거룩한 존재였다. 그러나 정인의 삶을 통해 미군의 모습은 변색되어 간다. 스트립 절, 룸살롱 호스티스, 가짜 여대생 호스티스, 빠아 절 등으로 성장해 나가는 정인에게 미군이란 이름은 삶의 단단한 '고삐'로 그를 움켜쥐는 존재로 변모해갔다.

정인이 겪는 질긴 고통 속에서도 잠시 그를 느슨하게 풀어주며 행복감을 안겨주는 존재가 바로 '상우'라는 대학생이었다. 상우와의 만남을 지속하는 것은, 더럽혀진 자신의 육신에 대한 기만이요, 삶에 대한 모독이라고 정인은 생각한다. 그러나 참된 모습의 사랑으로 다가서는 상우에게 정인은 감동하고 마침내 결혼을 단행한다. 상우는 비판적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운동 경력으로 인해 '반제동맹' 사건에 연루되고, 3년형의 옥고를 치르게 된다. 정인은 남편의 구속과 처벌은 월북한 아버지를 가진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한다.

그래서 45년 9월 점령군으로 진주한 미군이 오늘날까지 술한 강간, 총살, 교살, 강도, 방화, 사기, 뺑소니 등 10만 명이 넘는 범죄자들이 이 땅의 민중을 짓밟고 있어도, 우리 남한이 미군 범죄의 소굴이 되어가도 우리는 그저 파리악을 먹은 듯 눈만 꿈벅이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그들의 상업문화는 사람을 쾌락으로 몰아잡니다. 그래서 자본종속국인 나라는 어디에나 서비스업, 유흥업소, 매음지대가 성황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정 때 신마찌나 또는 2,30만이란 처녀를 정신대에 공출하게 된 것도 팻쇼자본에 원인이 있었고 지금도 성욕 소모품으로 유린당하고 있는 우리의 외국인상대 위안부들도 종속자본사회라는 것이 그 바탕적 원인이며, 제가 윤락여성들에게 관심을 두고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미아리의 어느 창녀들은 성기로 매주명을 따고, 철거촌 아이들은 구경도 하기 힘든 바나나를 성기로 잘라보이면서 틈을 받는데 이런 변태성까지도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자본국엔 어느 나라에서나 도출되고 있는 것이고 또 담요부대라 해서 트럭이 세워진 곳에 가면 사십대 아줌마들이 담요 한 장과 커피포를 들고 다니며 운전수들에게 커피도 팔고 담요를 깔아놓고 몸도 파는데 그중에는 창녀퇴물도 있지만 많은 아줌마들이 빈민촌에 살았고, 먹여살려야 할 가족이 주령주령 매달렸거나 중병은 남편이 있는 것을 볼 때 아이들에겐 소중한 엄마까지 일회용오락기로 물려가고 그러한 윤락형성대까지 발전하고 있는 것 또한 식민국이라는 바닥이 파먹내는 처절한 병폐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자주국가는 국민의 평등뿐만 아니라 매음, 마약환자가 없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선전하듯

이 모두 굶주리고 있다는 사회주의국가에조차 몸을 파는 창녀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해안도시마다 백인들의 정액반이를 하고 있는 제 민족의 윤락녀를 보고 가슴 아프고 자존심이 상해 혁명을 꿈꾸기도 했다는 가다피처럼 우리 역시 양키를 몰아내지 않는 한 이 쓰라린 인간모독은 끝날 날이 없고, 매음부가 있는 한 여성운동가나 우리의 주부, 어머니들 역시 진정하게 해방될 수 없으며, 우리 민족들 모두가 더불어 해방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남성들은 그 누구도 여성의 순결을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여성들을 스스로 지키지도 못하고, 가난한 민중의 꽃들을 외세 앞에 던져두고도 모른척해 온 남성들이 무슨 자격으로 처녀 혹은 여성의 순결만을 바랄 수 있단 말입니까.

— 윤정모, 「고삐」

정인이 고달픈 육체의 매춘 현상에서 벗어나 남편 상우의 세계로 교감하여 들어간 반면에, 아버지가 다른 여동생 해인의 경우에는 미군에 대한 어린 시절의 향수를 버리지 못한다. 해인은 기지촌의 매춘녀가 되었고 미군과 결혼하여 조국을 떠난다. 해인은 조국을 버리면서까지 미국을 고마워할 수 밖에 없는 여인이 됨으로써 그들 가족은 끝내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단절되고 만다. 정인과 해인을 가르는 두 개의 이데올로기는 민족모순에서 비롯된 저항이데올로기도 아니요, 계급적 이데올로기도 아닌 실로 색깔없는 이데올로기의 비극적인 대립이다.

Ⅲ. 기지촌 소설의 문학사적 의의

미군의 기지촌과 한국 매춘의 상호관계는 한국사의 어두운 일부분을 점철하는 아픈 사실로 남아 있다. 이 땅에서 미군은 떠나도 미국은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일설이 아니더라도 미국이 한국 땅에 남긴 흔적이나 영향은 엄청나게 크다. 물론 그들이 우리에게 준 혜택이나 고마움은 분명 크지 않다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은전에 따르는 피해는 '고마움'의 크기를 넘어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군의 기지를 둘러싸고 이루어진 기지촌. 그 기지촌에 기생하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스스로 자립의 길을 걷고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이들 모두에게 민족적인 이데올로기의 아픔은 함께 한다.

한국의 기지촌 소설들을 그 기법적인 중심으로 살펴본 것은 결코 한국의 매춘현상을 역사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함이 아니었다. 매춘이라는 행위와 역사, 사회적 흐름의 함수관계를 통해 한국인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우리들이 걸어나가야 할 미래적 방향을 찾아보고자 함이었다. 기지촌 소설들의 거칠고 폭력적인 문체, 은어와 비속어의 거침없는 구사, 고발지향적인 문체들을 통해서 우리들 독자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분노와 조소가 아니라 아픔과 연민의 정서요, 민족적 이데올로기의 저항정신이었다.

기지촌 소설에서 분노와 고발적 이데올로기가 더욱 강렬해지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신상웅의 「분노의 일기」(1972) 이후였었다. 1980년대를 넘어 오면 박석수의 기지촌 소설들이 연작 형식으로 나타난다[「철조망 속 휘파람」(1982), 「썩고개1」(同居人, 1982), 「썩고개2」(외로운 증언, 1985) 등]. 또 이들 기지촌 소설의 서술자들은 지적 수준이 높은 작중인물의 시각으로 기지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기지촌은 미군과 양공주 사이에 돈과 성이 거래되는 곳만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지촌 소설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1980년대 말에 접어들어 윤정모의 「고삐1」(1988. 11)²¹⁾이 등장하고 1990년대에 「고삐2」(1993. 12)가 연이어 나왔다. 「고삐」는 기지촌의 생생한 역사적 현상이었고 작가 자신의 자서전적인 모습으로 형상화한 것인만큼 충격과 아픔이 그만큼 컸다. 기지촌 소설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은 사회와 역사의식의 강렬한 터치가 작품 속에 용해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지촌 소설에는 한국 민족의 중층적인 이데올로기 구조, 그 속에서 수난의 길을 걷는 여성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기록되고 고발되어 왔다.

이들 소설들의 거칠고 직선적인 문체, 그리고 함축성없는 언어들의 구사는 일견 문학원론적인 이론과 부딪칠 때 ‘문학’이라는 장르의 해체현상을 거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지촌 소설이 ‘동일자’들의 영역에서 배제된 ‘타자’들의 이야기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을 때, 이들 거칠고 비문학적인 언어들의 문체에서 연민과 비애의 민족 정서를 공감할 수는 없겠는지. 한국의 기지촌이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은, 한국 민족의 역사

21) 윤정모의 <고삐1>은 오랫동안의 금서과정을 거쳤음에도 1994년에 접어들어서는 무릇 44쇄의 출판기록을 보이고 있다.

가 구조의 양분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못 가진 자의 범주에서 고독하게 머물고 있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불가능의 탈구조' 역사를 가슴 한 가운데 묻어두고 기지촌을 안고 사는 민족이다. 우리는 기지촌을 배제의 영역 저 쪽으로만 밀어 붙일 수 없다. 우리는 타자와 주체를 함께 안고 있는 그러한 주체로써 살아남아 가슴 한 가운데 있는 민족의 응어리를 깨뜨리며 살아가야 한다.

기지촌의 소설들은 매춘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소설들이 아니다. 권력과 정치, 권력과 자본의 유착이 어떻게 매춘 현상을 이용하였던가. 매춘의 문제는 과연 정당 한가.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이 현상을 개선해야 할 것인가. 기지촌 소설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증언하고, 제기함으로써 민족의 역사를 모순 속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강렬한 작가의식의 산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 문학사에서 민족의 이데올로기를 전고하게 지켜나가는 중요한 보루로써 기지촌 소설들은 그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 텍스트

- 남정현, 「분지」, 《현대문학》, 1965. 3
 박석수, 「동거인」, 《소설문학》, 1987. 1~4
 ———, 「외로운 증언」, 《소설문학》, 1985. 10
 ———, 「철조망 속 휘파람」, 《현대문학》, 1982. 10
 송병수, 「쓰리 킵」, 《문학예술》, 1957. 6
 신상웅, 「분노의 일기」, 『신상웅창작집』, 1974
 오상원, 「난영」, 《현대문학》, 1956. 3
 ———, 「보수」, 《사상계》, 1959. 5
 ———, 「황선지대」, 《사상계》, 1960. 4
 오영수, 「안나의 유서」, 《현대문학》, 1963. 4
 윤정모, 「고삐1」, 풀빛, 1988

- _____, 「고삐2」, 풀빛, 1993. 12
 _____, 「빛」, 1987
 이문구, 「해벽」, 《세대》, 1972. 2
 조해일, 「아메리카」, 《세대》, 1972. 6
 천승세, 「황구의 비명」, 《한국문학》, 1974. 8
 하근찬, 「왕릉과 주둔군」, 『신작15인집』, 1963

논문과 책들

- 강성철, 『주한 미군』, 일송정, 1988
 광 근, 시대변화와 기지촌 소설(한국문학평론과협회 편, 『정치권력과 문학』, 백문사, 1993)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 1993
 김정자, 해방공간과 전후의 소설.
 박종성, 『한국의 매춘』, 인간사랑, 1994
 윤호병·김성곤, 탈구조주의의 문학적 의의와 전망(윤호병 외, 『후기구조주의』, 고려원, 1992)
 이경복, 한국근대기녀사, 《전통문화 6》, 대왕, 1985
 이상신, 『소설의 문체와 기호론』, 느티나무, 1990. 10
 장병호, 식민지시대 매춘제재 소설의 고찰, 《청람어문학》, 1990. 10
 한국사회론, 『현대 한국사회의 구조와 역사적 변동』, 한울, 1990
 Gérard Genette, *Narrative Discourse : An Essay in Method*, Ithaca: Cornell UP, 1980(권택영 역, 『서사담론』, 교보문고, 1992)
 Michel Foucault, *L'ordre du discours*, Gallimard, 1971(이정우 역, 『담론의 질서』, 새길, 1993)
 Mikhaïl Makhtine, *The Dialogic Imagination*, Texas, cl., 1981
 Peter V. Zima, *Pour une Sociologie du Texte Littéraire*(이건우 역, 『문학텍스트의 사회학을 위하여』, 문학과지성사, 1983)
 Roger Fowler, *Linguistics and the Novel*, Methuen & Co. Ltd., 1977(김정신

역, 『언어학과 소설』, 문학과지성사, 1985)

Tzvetan Todorov, *Mikhaïl Makhtine : le principe dialogique, suivi de Ecrits du Cercle de Bakhtine*, Éditions du Seuil, 1981(최현무 역, 『바흐친 : 문학사회학과 대화이론』, 까치, 1987)